좌익교사들 선동에… 중학생까지 '반란 부나방'

〈4면에서 계속〉 반란군 20여 명은 2대대와 3대대 중대장실을 다니며 장교는 무조건 사살하고, 1대대장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너희들 누구냐?"하며 대대장 김일령 대위가 일어서며 외쳤다. 그러자 반란군들은 총을 난사하여 죽였다.

총소리에 놀란 2대대와 3대대 장병들이 내무반에서 밖으로 나오려 하자, 반란군들이 막사를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경찰이 부대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빨리 탄약고에 가서 실탄을 가지고 집합하라!"고 명령하자, 2대대와 3대대 장병들은 영문도 모르고 실탄을 지급받아 연병장에 모여 반란군이 되었다. 여기에 반항하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고 장교들을 죽이니 장병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휘할 장교들도 없어 겁에 질려 모두 반란군이 되고 말았다.

반란군은 1대대장 김일령 대위·2대대장 김순철 대위·3대대장 이봉규 대위·연대 작전주임 간성윤 대위·1중대장 차지영 소위·2중대장 김용관 중위·진도영 중위 외 3명(육사 3기) 김록영 중위 외 7명(육사 5기)·이병순 소위 외 6명(육사 6기) 이상 우익 장교 20여 명을 죽이고, 2대대와 3대대까지 반란군으로 만들어 14연대 2300여 명이 완전히 반란연대가 되었다. 하사관과 사병도 총 40여 명이 살해되었다.

한편 14연대 정문 앞 식품점에서 반란이 성공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여수 남로당원 23명은 "개는 잘 짖고 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부대 안으로 들어가 무장하고 반란군과 합세하였다. 그 수가 약 2200명이었다.

▲**소결론**: 좌파들은 이상과 같은 14연대 반란을 '여순봉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순천 역사(驛舍) 앞에 안내판을 세운 자들은 분명 지창수·김지회 등과 뜻을 같이하는 자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섯 명이 여수와 순천을 찾아가 반란이 아니라 항쟁이라고 고칠 것을 강요한 일도 있다. 이런 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국가는 이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여야 하고, 이러한 좌익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박탈해야 한다.

3. 반란의 진행-반란군 여수 점령과 학살

지창수가 반란에 완전히 성공한 시간은 20일 새벽 1시로 약 5시간이 걸렸다. 반란 소식을 듣고 고인수 여수경찰서장은 200여 명으로 방어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반란군은 여수경찰서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20일 오전 9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상을 만들고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걸었다. 여수시 남로당원 600여 명은 무장을 하고 여수시를 이잡듯이 뒤져 경찰과 우익을 찾아 21일까지 400여 명을 죽였다고 전해진다.

반란군들의 순천 학살 당시 '울밑에선 봉선화'를 부르고 숨진 한 성악가의 최후가 상징적으로 남는다. 조정래는 그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바로 이 장면을 그린다. 조정래는 덤덤하게 이 장면을 그렸으나 이것은 반란군의 학살이 분명한 사실이었다.

국군에 총 쏘는 중학생… 토벌에 어려움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당시 이 반란군에 가담한 학생들이다. 철없는 어린 남녀 중학교 학생들이 반란군에 가담한 것은 당시 학교에 침투해 있던 좌익 교사들에 의해 세뇌된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여수중학교는 교장부터 좌익이었다. 이름이 송욱이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순천중학교 역시 다수의 학생이 반란군에 가담하였다. 이는 좌익들의 군중 선동에 의한 결과였지만, 혁명에 대한 막연한 동경(憧憬)과 순천·여수 지역을 휩싸던 군중심리에 의해 휩쓸린 결과였다. 이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 좌익이념은 유행 같은 것이었습니다. 혁명과 투쟁이란 모험과 영웅을 꿈꾸는 젊은 피를 자극하기에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공산혁명이라는 극악한 독물(毒物)을 우리는 동경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일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로 진격할 때 골목길에 숨어있던 여학생들이 국군을 유인하여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그 철없는 여학생들. 사람을 죽인다는, 그것도 동포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던 여학생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어린 것들을 이용하여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한 자들이 바로 빨갱이라 불리우는 좌익들이었다.

그리고 더 가증스러운 것은 당시 반란군들이 지리산으로 후퇴할 때, 이 어린 것들을 엄호세력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모두가 도망친 여수·순천 시내에 남아서 국군에게 총을 쏘던 학생들은 반란군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죽어갔다.



진압군이 붙잡은 중학생으로 보이는 반란 가담 용의자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빨치산 학살은 덮고 양민 희생만 부각

순박해 보이는 여학생들도 국군에게 총을 쏘아대는 마당에서 토벌이 평화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시 좌익들은 여수·순천에서 엄청난 숫자의 우익 인사들을 학살하였다. 그런데도 그 빨치산 학살은 묻어두고, 학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국군과 경찰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반란군 진압 과정, 반란군 토벌 과정에서 발생한 빨치산 부역자 처형을 양민 학살로 둔갑시키고, 모든 죄를 경찰과 국군의 범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다음은 여수·순천지역 학살에 관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그 출처를 밝힌다.

이날 17:00경 반란군은 순천의 전 시가지를 완전 점령하고 좌익분자들과 중고등학생을 선동하여 무장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반동분자를 색출하게 하여 500여 명을 인민재판 아래 학살하였다.

특히 순천지역 일대에서는 경찰관 400여 명이 반란군 진압작전을 펼치던 중에 전사하거나 반란군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렇게 반란군의 횡포가 극에 달하게 되자 민심은 동요되고, 소박한 주민들은 실제로 공산 정권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으며, 반란군의 선동과 강압으로 이들에게 가담하는 자가 속출하여 무장 폭도들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였다. 순천에서 세력을 확장한 반란군은 3개 부대로 재편성하여 1000여 명으로 편성된 주력은 북쪽의 학구(鶴口)·구례 방면으로, 1개 부대는 동쪽의 광양(光陽) 방면으로, 1개 부대는 서남쪽의 벌교(筏橋)·보성 방면으로 분진(分進)하면서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살해하였다.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반란군의 일부는 지방 좌익세력과 합류, 인공기를 게양하고 순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인민행정(人民行政)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모든 우익 인사들을 즉석에서 살해하거나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400여 명을 처단하였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구판 1권), 1967, p. 458).

여수에 '인민공화국'을 만든 좌익세력은 20일 15:00시경 인민대회(人民大會)를 중앙동광장에서 열고 약 4만여 군중이 모인 가운데 이용기(李容起)를 비롯한 5명의 의장이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 대회에서 좌익단체인 노동조합 대표·농민조합 대표·여성동맹 대표·청년 대표의 "인민공화국 수호"를 외치는 연설이 있었고 5개 항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김남식, 위의 책, p.452).

- ㅇ 인민위원회의 여수 행정기구 접수를 인정한다.
- 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 ㅇ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 ㅇ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은 무효로 선언한다.
- ㅇ 친일파·민족반역자·경찰관 등을 철저히 소탕한다.

이러한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한 인민대회는 막을 내리고 인민대회에 모였던 시민들은 곧이어 군중 시위에 들어갔다. 좌익 군중은 여수군청을 비롯한 각 기관들을 접수함으로써 하루 만에 여수 시내는 좌익세력에 의한 인공치하(人共治下)가 되고 말았다.

한편 비합적으로 지하에서 활동하던 '민애청(民愛靑)' '민주여성동맹(民主女性同盟)' '합동노조(合同勞組)' '교원노조(敎員勞組)' '철도노조(鐵道勞組)' 등이 나타나 제각기 간판을 내걸었다. 그 이튿날(10.21) 여수시내 좌익분자들은 한독당(韓獨黨)을 제외한 한민당(韓民黨)·독립촉성국민회·대동청년단·민족청년단·서북청년회 등의 간부와 단원들을 반역자로 적발·체포하였으며 이들은 이날 인민재판을 개최하고 제일 먼저 여수경찰서장 고인수(高寅洙)를 비롯한 사찰계 직원 10여 명을 처형한 것을 필두로 수십 명을 숙청하였다.

특히 이들은 여수경찰서 소속 여자 순경 2명을 붙잡아 대낮에 발가벗긴 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부분에 총을 쏘아 죽이고, 한 명은 총알이 아깝다면서 죽창으로 국부를 찔러 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엔터프라이즈, 1988년 5월호). 그리고 그들은 '여수일보'를 접수해 '여수인민보'라는 좌익신문을 발간하였다. 이들의 우익 세력에 대한 인민재판은 계속되어 처형된 수가 첫날만 400명을 넘었다. 여수 지역 통틀어 반란군에 희생당한 사람은 모두 1200여 명이었다.

반면, 반란군은 모두 392명이 사살되었고, 포로는 1512명이었다.

4. 반란의 심화-이현상의 등장과 반란군 순천 점령

10월20일 오전 9시 반란군은 여수역 광장에 모였다. 이때 남로당 중앙당 연락부장 이현상(후일 남부군 지도자.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짐이 될 것을 두려워 한 북한의 지령으로 등에 총을 맞고 사살됨)의 지령으로 김지회 중위가 반란군 사령관이 되었다.

반란군에 밀려 경찰 저지선 와르르

그리고 반란군을 지휘하던 지창수는 1개 대대로 여수에 남아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지회는 중앙당으로부터 순천을 점령하고 학구와 구례를 거쳐 남원으로 북상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반란군 2개 대대는 열차를 타고 20일 아침 9시30분 순천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들이 탄 열차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순천은 남로당 출신 좌익 홍순석 중위가 반란군을 기다리고 있어 순천 점령은 시간문제였다.

10월20일 여수에서 14연대 반란이 일어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양계원 순천경찰서장은 경찰을 동원하여 삼거리에서 반란군을 저지하게 하였다. 전 경찰을 순천역 동쪽 봉화산 밑에서 14연대 병력이 기차에서 내릴 때 공격하게 하고, 호를 깊이 파게 지시하였다. 10시 경찰 배치가 끝나자 순천 시내 여러 곳에서 총성이 요란하였다.

10시30분 순천에 온 반란군에 의해 삼거리 경찰은 순식간에 돌파되었고, 10여 명의 경찰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반란군이 순천역 동쪽 고지를 향해 바람처럼 진격하자 이것을 본 경찰은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급보를 받고 광주 4연대 2대대 1중대를 순천에 급파하였는데, 1중대 좌익들이 또 중대장과 우익을 죽이고 반란군에 합세하였다.

순천 장악 후 태극기 대신 인공기 올려

반란군과 진압군은 서로 구분하기 위하여 진압군은 철모에 흰 띠를 둘렀는데 이제는 반란군도 흰 띠, 진압군도 흰 띠여서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순천에 파견된 홍순석에게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하였지만 홍순석도 남로당원이었다. 그에 의해 이미 2개 중대가 반란군에 합세한 상태였다.

10월20일 오후 3시경 반란군은 순천을 완전히 점령하여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올렸다. 이어 남로당원들은 우익과 경찰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한편, 반란군은 순천중학교에 연대본부를 설치하고 참모들과 대대장·중대장들을 더욱 보강하여 조직을 튼튼히 하고 순천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다.

10월20일 오후 3시 순천중학교에 있는 반란군 연대본부에서 김지회 사령관은 1대대는 순천을 방어하게 하고 2대대는 벌교·학구와 광양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홍순석 중위가 "부대를 분산하면 각개격파 당하므로 순천은 입구만 봉쇄하면 여수까지 자연 봉쇄되어서 여수와 순천을 해방구로 만들어 철저히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몇 년이고 버티는 작전과, 아니면 즉시 지리산으로 들어가 유격대가 되어 장기전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곧 광주의 4연대·군산의 12연대·전주 3연대·대전 2연대·마산 15연대가 올 것인데 벌교·학구·광양을 공격하여 부대를 분산하면 절대 우리는 각개격파 당하고 북진해서 서울도 가지 못하고 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고 김지회의 작전을 반대하였다.

만일 김지회가 홍순석의 작전대로 순천 입구의 고지를 점령하고 철통같이 방어전을 한다면 국군이 이들의 방어진지를 뚫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공포하였고, 이미 미 24군은 일본에서 해체 중이었으며, 한국에 있는 미군 3개 사단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군의 전차를 동원하지 않고는 공군도 해군도 여수 순천을 탈환하기는 어려웠다.

김지회가 홍순석의 작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지만, 김지회는 중앙당에서 학구를 거쳐 남원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당에서는 광주 4연대 일부·군산 12연대·전주 3연대·마산 15연대 내의 남로당원 등에게 반란을 일으켜 이들과 합세하여 서울로 진격하라는 명령이어서 내일이 최대 고비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2개 대대는 별교·학구·광양을 점령하기 위해 순천을 출발하였다. 이때 남로당 연락부장 이현상은 순천에 도착하여 작전을 지도하고 있었다.

좌익 반란군이 저지른 학살 및 피해 상황

피해내용	여수	순천	합(合)
학살당한 경찰 및 우익인사와 그 가족	1200명	1143명	2343명
부상자	1150명	모름	1150명
가옥 피해	154동	18동	172동
행방불명자	3500명	818명	4318명
국군피해	장교 21명, 하사관 및 사병 42명		

5. 반란군 진압-백인엽의 반격

1948년 10월20일 이성가 4연대장은 부연대장 박기병 소령에게 1개 대대를 지휘하여 순천 북방 10㎞ 지점 학구에서 반란군이 구례·남원으로 가는 것을 저지하라고 명령하였다. 박기병 부연대장은 정신없이 군장을 준비하고 1개 대대를 지휘하여 학구에 도착하였다. 그는 광주에서 학구까지 오는 도중 누가 좌익사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불안하였는데 무사히 학구에 도착하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4연대 장병들이 싸우려 하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육본에서도 급보를 받고 깜짝 놀라 참모총장 채병덕 준장·작전참모부장 정일권 대령·정보국장 백선엽 중령이 비행기로 광주에 도착하여 보고를 받고, 14연대반란군진압사령부를 신설하여 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고 참모장에 백선엽 중령·작전참모에 김점곤을 임명하였다.

광주 4연대 1개 대대가 학구에 도착하였고, 군산의 12연대 2개 대대는 부연대장 백인엽 소령이, 전주 3연대 1개 대대는 부연대장 송석하 소령이 지휘하여 진압사령부에 배속되었고, 5연대 1개 대대·15연대 1개 대대 합 5개 대대로 진압에 나섰다.

진압군사령부는 12연대·3연대·4연대를 주력으로 학구에서 반란군 북상을 저지하고, 광양을 15연대, 보성과 벌교는 4연대 일부를 조공(助攻)으로 진압명령을 내렸다. 순천을 3개 방향에서 공격 진압할 계획이었다.

광주 4연대 1대대 2개 중대를 오덕준 중령이 인솔하여 보성을 점령한 반란군을 진압하러 군 트럭 5대에 분승하여 보성 위 4㎞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반란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집중 공격을 하였다. 최훈섭 대대장이 장병들에게 하차하여 포위망을 뚫으라고 명령하여 겨우 포위망을 뚫었으나 보성 진압에는 실패하였다.

마산의 15연대는 어제 진주를 거쳐 하동에서 잠을 자고 아침 6시 최남근 연대장은 광양에 있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15연대 최남근 연대장은 좌익 장교로서 김일성의 직계였다.

진압사령부 신설… 반란군 본격 포위

15연대는 3중대가 첨병중대가 되고, 2중대 1중대 순으로 행군을 하였다. 반란군들은 15연대가 진압차 광양으로 오는 것을 알고 광양 동쪽 8㎞ 지점 옥고면 산중턱에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15연대가 사정권에 들어오자 집중사격을 하였다. 첨병중대장 손 중위(육사 5기)가 차에서 뛰어내려 부대를 지휘할 때 몸이 노출되어 반란군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다.

조시형 소위(육사 5기)가 2개 중대를 지휘하여 고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하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장병들과 같이 뛰었다. 대대장 한진영 대위(육사 2기)도 같이 뛰었다. 고지를 향해 뛰어가는데 한 군인이 "국군이 어느 부대입니까?"하고 물어왔다. 한진영 대대장은 의심도 않고 "나 15연대 1대대장이다" 하자, 그 군인이 한 대대장에게 총질을 하여 그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다. 그 군인은 반란군이었다.

이 광경을 본 3중대 장병들은 싸우려 하지 않고 슬금슬금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반란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광경을 보고 15연대장은 전 병력을 후퇴시켰다.

그런데 3중대가 타고 온 트럭 세 대가 도로상에 그대로 있었다. 최남근 연대장은 조시영 소위와 같이 트럭 세 대를 끌어 오려고 차량 가까이 가서 보니 차량 주위에는 온통 반란군뿐이었다. 이것을 알고 조시영 소위가 연대장에게 눈치를 보내어 빨리 가자고 할 때 장병 한 명이 총구를 두 사람 가슴에 겨누었다. 결국 최남근 연대장과 조시영 소위는 포로가 되어 화엄사와 피아골 사이의 문수골로 끌려갔다.